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례 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 같 이
※ 예배부름 …… 인 도 자
※ 예배기원 …… 인 도 자
※ 경배찬송 ……10장(전능왕 오셔서) …… 다 같 이
※ 교 독 문 …… 105(감사절1) …… 다 같 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288장(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다 같 이
예배기도 …… 1부 김선주집사 2부 강향구장로
응 답 송 ……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다 같 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중보의기도 …… 다 같 이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 주옵소서.
*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레위기23:15-16,21-22 …… 공영순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맥추절의 영적교훈 "** 최세열목사
기 도 ……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 301장(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 같 이
봉 헌 ……(8 구역) …… 다 같 이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맡 은 이
※ 찬 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같 이
※ 축 도 …… 담임목사
※ 축 복 송 ……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8:00	새벽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께 기 도 / 김순님권사 본 문 / 사도행전15:14-17 말 씀 / 최세열목사 *Acts29 -제1과정 교회 3강 사도행전의 방향 축 도 / 최세열목사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께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고후 6:11-13 말 씀 / 최세열목사 - 마음을 넓히라 주기도문 / 다같이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예레미야서 강해 **금요기도회** 저녁 9시 개인기도, 중보기도 합심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민명화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 음 주 기 도	1부	박기환집사
					2부	박홍만장로
헌금위원	7월	김한순 노재의 한미경 정재영		다 음 주 성경봉독	1부	맡 은 이
	8월	김대봉 허 웅 최승연 주종임			2부	최경선권사
식당봉사	금주	베드로회	다음주	에스더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애자권사
헌신찬양	금주	8 구역			다음주	안드레청년

맥추절의 영적교훈 / 레위기 2315-16,21-22

맥추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농사를 짓고 거두어들인 첫 열매로 드린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 곡식을 추수하여 드린 감사절이지만 그것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질서라는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진리는 심고 거두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창1:11). 이것은 곧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간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기를 원하십니다(창3:19).

자연의 진리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은 무조건 심기만 한다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었고, 어떻게 가꾸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옥토에 뿌려져야만 열매 맺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옥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심음의 또 다른 법칙은 믿음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심는 것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시126:6, 약5:7). 정직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2.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따라 수고하지만 그 수고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신11:14).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신8:17,18).

우리의 수고함을 지켜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시128:2, 시127:1,2). 수고나 노력은 사람이 하지만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세워주심, 지켜주심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3. 이 절기는 나눔과 함께 즐거워함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 절기에는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하시고, 밭의 모퉁이를 남기고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가나한 자와 거류민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신16:11절은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얻을 것을 기부하고 나누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공동체에 유익과 즐거움을 주어야 합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뜻있는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섬김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의 결실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같은 삶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맥추절기의 정신입니다.

땀 흘려 수고함으로 결실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결실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고 유익하게 하며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신앙주제 / 7. 예배(2013.7.7.)

제1과 이사야의 예배 경험(이사야 6장 1-13절)

말씀 살피기

웃시야 왕이 죽던 해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영적 체험을 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한 분을 봅니다. 스랍들이 그 분을 모시고 있는데 서로 화답하는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이사야는 제단의 숯이 입술에 닿아 죄가 사하여지는 체험을 한 후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1. 이사야가 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분은 누구입니까?(1절)
2.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며 부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3절)
3. 스랍들이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 이사야의 、 입술에 대며 한 말은 무엇이었나요?(7절)

말 씀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사야의 예배 경험을 살펴봅시다.

첫째, 이사야가 본 것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었습니다.

웃시야 왕의 죽음으로 땅의 보좌는 위태로웠지만 하늘 보좌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오늘날 이사야처럼 경이로운 환상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우리도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둘째, 이사야가 들은 것은 스랍들이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스랍들이 찬양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였습니다.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엡5:18, 골3:16)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이사야가 느낀 것은 자신의 좌와 그 죄로부터의 깨끗함 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죄를 고백할 때 스랍중 하나가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댈 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 졌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양심의 가책을 넘어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이사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사야는 죄 용서함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사명에 자원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나 나를 보내소서"(8절).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항상 섬김의 삶으로 이끕니다.

말씀적용

1. 최근 예배 중에 최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체험했던 이야기를 나눕시다.
2.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시다.
2. 해든솔 선교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8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3. 성령 충만을 위한 작정밤기도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주변에 있는 어린들을 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김연학 김장숙 이문순 심재룡 김종천 이영선 김선주 원혜경 강은순 김대봉 김태라 김근중 주종임 양석임 서영자 권세갑 김금자 김숙희 지대근 김혜경 방옥남 박정일 한상호 차소라 정숙자 엄정현 천사라 강동균 김현아 강항구 류종란 박윤희 박상귀 공영순 박세일

□ 감사헌금 : 노재의 김영란 신공님 박희순 양석임 박광섭 박홍만 정정희 김태현 강지선 무 명 (맥추) 나주익 최승연 무 명 (생일) 오복실 이기훈

□ 건축헌금 : 김근중 주종임 김혜경 권세갑 김금자 박상귀 공영순 강항구 류종란 방옥남 양석임

□ 비전씨앗 : 배영인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이현옥	4	12,000	25	천사라	7	강은순	이영선	김숙희	7	18,000	70	
2	정정희	김한순	신혜영	4	16,000	30	김한순	8	김순님	오복실	김상예	6	23,000	20	김장숙
3	이춘호	황경숙	신공님	3	30,000	100	이현주	9	김인순	이영란	박치국	3	15,000	80	김인순
4	김기희	최경선	최경선	6	18,000	51	임애경	10	장영분	박현순	노재의	2	15,000	100	노순영
5	이문순	원혜경	방옥남	2	10,000		남궁순								
6	류종란	김애자	김애자	3	12,000	105	강진숙	계				40	169,000	581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도실

감사는 축복의 통로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 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기, 마음속 욕망 등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다. 기왕이면 감사를 습관화해야 한다.

둘째,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법이다.

셋째,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다.

넷째,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준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된다.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다.

최고의 복은 나눔입니다

수효를 세는 일을 셈이라 한다. 셈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가감승제(加減乘除)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더하는 복이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더 주신다. 더하기로 나타나는 복이다.

두 번째는 빼기로 나타나는 복이다. 우리가 불의와 죄악을 버린 만큼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이다.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새사람으로 입혀주신다.

세 번째는 곱하기로 나타나는 복이다.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내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최소한 30배요 그 다음은 60배이며 그 다음은 100배이다.

네 번째는 나눔으로 받는 복이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남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는 무한대로 복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나눈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신다(눅 6:38). 최고의 복은 나눔이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27 2013.7.7.

7 월의 행사

1. 맥추감사절 : 7월 7일
3. 평신도 참여예배 - 7월 21일 - 루디아회
4. 해든솔 선교활동 - 7월 13일(토) 오전8시30분
5. 교육부서 여름행사안내
   * 어린이부 : 7월 19일(금)-21일(주일)
     - 장소 : 삼광교회, 원천교회
     - 담당 : 강은순전도사, 김선주집사
   * 청소년부 : 8월 1일(목)-3(토)
     - 장소 : 전주 한일장신대학교
     - 담당 : 이경훈전도사, 박세일집사
   * 청 년 부 : 8월 15일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자

다 와서 여호와께 기쁜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음악과 노래로 주를 높입시다.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이십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도 그분의 것이며, 가장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이는 주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손으로 마른 땅도 지으셨습니다. 다 와서 엎드려 주를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는 양 떼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므리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의 맛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집부리지 마라. 그 곳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였다. 내가 행한 일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나를 시험한 것이다. 나는 사십 년 동안, `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시편 95:1-11/쉬운성경)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